

메시지 4
신부의 아름다움

성경: 롬 6:19, 22, 엡 5:25-27, 계 19:7-9, 살전 5:23, 아 8:13-14

I.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도록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이다 — 살전 4:3상, 벧전 1:15-16, 엡 1:4-5, 5:25-27, 살전 5:23-24, 롬 6:19, 22.

A.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 단계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전체를 제시한다.

1. 과거에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 엡 5:25.
2. 현재에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분의 배필이 되도록 교회를 그분의 요소로 적시시어 교회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 이것은 신부를 아름답게 하고 준비되게 하는 유기적인 구원이다 —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 엡 5:26.
3. 장래에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배필로서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다 —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이것은 그분 앞에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 엡 5:27.
4. 과거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현재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며, 장래에는 그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배필인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B. 신부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지신 다음 교회로부터 빛나시어 교회를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나온다 — 사 43:7, 엡 3:21.

C. 그리스도는 그분의 남아 있는 백성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왕관이 되신다 — 사 28:5.

1. 면류관(crown)은 모자나 두건과 같고, 왕관(diadem)은 그 면류관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분인 머리띠이다 — 출 28:36-39, 29:6, 사 62:3.
2.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집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됨으로 주님께 의해 아름답게 되어, 우리의 아름다운 왕관이신 그분을 소유한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이다 — 고후 3:18, 계 19:7-9, 사 28:5, 시 27:4, 사 60:1, 7, 9, 13, 19, 62:3, 계 21:11.

II. 회복 안에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하시는 주님의 참된 일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기질상의 거룩하게 함이 없이는 신부가 준비될 길이 없으며, 따라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도 성취될 길이 없다.

A.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를 씻기시어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아름답게 되고 있다 — 엡 5:26-27.

1.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생명의 물이신 그 영이 계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 요 6:63.

2.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우리를 씻겨 주는 말씀이다. 이것은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말씀 곧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레마’를 가리킨다 — 마 4:4, 요 6:63, 계 2:7, 22:17상, 비교 사 6:9-10, 마 13:14-15, 행 28:25-31.
 3.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영이다. 그분의 말씀하심이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의 임재이다 — 요 6:63, 엡 6:17.
 4. 생명 주시는 영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항상 즉각적인, 현재의, 살아 있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신진대사적으로 옛것을 씻겨 내시고 새것으로 대체하시어 내적 변화를 가져오신다.
- B. 이렇게 씻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신부, 곧 흠이나 결함이 없는 신부가 된다 — 계 19:7, 비교 아 6:13, 8:13-14.
- C.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에 의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신성한 사상에 따르면, 여기에서 ‘물’은 흐르는 물로 예표된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킨다(출 17:6, 고전 10:4, 요 7:37-39, 계 7:17, 21:6, 22:1, 17).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금 우리는 이러한 씻는 과정에 있다.
- D.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씻는’에 대한 헬라어는 직역하면 ‘물두멍’이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 물두멍을 사용했다(출 30:18-21). 매일 아침저녁으로 우리는 성경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겨야 한다.
- E. 바울은 말씀과 말씀으로 씻는 과정에 대해 말할 때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다(엡 5:26). 로고스는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막 14:72, 눅 1:35-38, 5:5, 24:1-8).
- F. 레마는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레마는 우리가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깨끗이 씻어 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눅 물두멍은 비추고 드러낼 수 있는 거울이었다 — 출 38:8). 우리 각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이다.
- G. 우리가 항상 보배롭게 여기는 한 가지는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참된 생명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는 것에 달려 있다. 오직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말씀만이 참된 영적인 가치를 지닌다 — 히 3:7-11, 15, 4:7, 시 95:7-8.
- H. 우리 기도의 중심 요점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배필인 신부를 얻으시려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 계 2:7, 비교 삼상 3:1, 21, 암 3:7.
- I.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말씀하심과 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은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의 임재이다.
- J.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씻는 물이다. 이러한 씻는 물은 새 요소를 우리 안으로 넣어 우리의 본성과 기질에 있는 옛 요소를 대치한다.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씻음은 생명의 참되고 내적인 전환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기질적인 거룩하게 됨과 변화의 실재이다.
- K.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 곧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가고 있다 — 엡 5:26-27, 계 2:7.

Ⅲ. 에베소서 5장 27절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결국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계시한다.

- A.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빛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감상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표현이다 — 시 50:2, 고후 3:15-18, 비교 출 28:2.

1. “네 눈은 아름다움을 지닌 왕을 보게 되며”(사 33:17상), “왕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입니다.”(시 45:11상)
 2.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한다오.” — 아 6:4.
- B. 신부가 준비된다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계 19:8)이다. 이 세마포 옷이 신부의 아름다움이다.
- C. 결혼식 날 신랑은 신부의 능력보다 아름다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의 하나님인 주 예수님은 우리의 인성을 통해 표현된 그분 자신의 아름다움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신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어 그분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매일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야 한다.
- D. 우리가 시간을 들여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율조림으로(엡 6:17-18, 시 119:15)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아름다워져 그분의 아름다운 집이 됨으로써 그분 또한 아름다워지시게 할 것이다(시 27:4, 고후 3:18, 사 60:7하, 9하, 13하, 19하, 21하).
- E.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은 주로 점과 주름을 처리한다. 점이란 타고난 생명에 속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주름은 늙음과 관계가 있다. 오직 생명의 물만이 생명의 변화에 의해 그러한 결점들을 신진대사적으로 씻어 낼 수 있다.
- F. 거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다. 흠이 없다는 것은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것으로서, 옛사람의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 비교 아 4:7.
- G. 또한 교회는 ‘그 같은 것들’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이런저런 결함’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도 비난받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교회를 이끄실 것이다 — 엡 5:27.

IV.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은 아가 8장 13절과 14절과 일치한다. 둘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앙망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을 계시한다 — “동산들에 거하시니 이여, / 나의 벼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 A. 아가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는, 벼들이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 자신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달라고, 그분의 동산들인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니 그분께 요청한다 — 아 8:13, 비교 4:13-16, 5:1, 6:2.
1.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인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일할 때 언제나 그분께 귀 기울이며 그분과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눅 10:38-42.
 2. 우리의 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우리의 일은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다(계 2:7, 삼상 3:9-10, 비교 사 50:4-5, 출 21:6).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자(사 6:1, 5) 우리의 주님이시자(고후 5:14-15) 우리의 머리이시자(골 2:19) 우리의 남편이신(고후 11:2)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계시나 빛이나 개인적인 인식도 얻지 못할 것이다. 믿는 이들의 생활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에 달려 있다(엡 5:26-27).
- B. 시적인 책인 이 아가의 결론을 맺는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그분께 부활 능력(가젤과 젊은 수사슴) 안에서 속히 오셔서 온 땅을 가득 채울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향기 그윽한 산들)을 세우시기를 기도한다 — 아 8:14, 계 11:15, 단 2:35.
1. 그러한 기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연인 사이의 혼인의 사랑 안에서의 연결과 교감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연인인 요한의 기도가 성경의 결론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사랑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계시해 주는 것과 같다 — 계 22:20.
 2. “주 예수님, 오십시오!”(계 22:20)는 성경에 있는 마지막 기도이다. 성경 전체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도로 끝맺는다.